

후드티·쇼핑몰 극장에 담긴 '도시의 이면'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준 지음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애드워드 글래저 교수는 인류의 최고 발명품으로 도시를 꼽는다. 다양한 사람의 생각의 교류로 혁신적인 발명과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다. 도시는 다양한 생각의 융합을 만들어내는 '융광로'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한 시대를 이끌었던 국가는 항상 세계적인 도시를 거느렸다. 로마제국의 로마, 프랑스의 파리, 미국의 뉴욕 등이 그런 예다. 물론 서울도 오늘날의 한국을 일군 대표적 도시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베스트셀러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 건축과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제시했던 건축가인 유현준 교수가 새 책을 발간했다. 유 교수는 그동안 '달음신집'과 같은 프로에서 쉽고 재미있는 건축 이야기로 강한 인상을 줬었다.

이번에 나온 '어디서 살 것인가'는 보통 사람들이면 하게 되는 질문이다. 사실 그보다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이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기도 하다. 제목만 보면 마치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몇 평으로 이사를 갈 것인지 묻는 것 같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쇼핑몰에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는 구조는 자동차 회사와 유통 회사가 수익을 올리는 형태가 됐다. <출문회사 제공>

'어디서', '어떻게'에 방점이 찍혀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도시를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가 아닌 어떤 공간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차를 선택할 때의 관 디자인, 브랜드보다 누구와 함께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타시 말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부합하는 도시모습을 상상한다. 저자는 '생활'과 '건축'과 '도시'를 종합무진하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준다.

명치대 석좌교수 유현준은 추천사에서 "그의 이야기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고, 첨단 과학과 전통이 맞물려 있다"고 언급한다. 대체로운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건축이라는 거울을 펼쳐낸다.

저자는 고대 종교 건축물 효시인 고베 클리 테페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한국의 도시로 이동해 SNS 같은 사이버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내는 건축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다.

책에서 다루는 주제도 수많은 도시만큼이나 다양하다. 합합 가수가 후드티를 입는 이유는 무엇이며 쇼핑몰에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는 이유 등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도시에 대한 이면을 풀어낸다.

"건축적으로 보면 후드티를 입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도시 빈민들이다. 이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선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려고 한다. 지붕을 소유하지 못하니 모자를 쓰고, 후드를 뒤집어 쓴다. 주변이 안 보이니 머리를 좌우로 두리번거려야 한다. 이런 행동이 합합의 무브(움직임)다."

또한 쇼핑몰에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는 구조는 자동차 회사와 유통 회사가 수익을 올리는 형태라고 진단한다. "우리의 스타일이 그런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들어 내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방향으로 도시가 진화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이 구조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하는 공간 시스템으로 복도까지 냉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대의 건축은 경계가 모호한 특성을 보여준다고도 설명한다. 이른바 '라디오 쇼 건축'이다. 여러 명의 MC가 진행을 하는 프로처럼 현대의 건축은 탈중심의 흐름도 하나의 트렌드라는 것이다. 골목길 망처럼 여러 갈래로 묶인 일본의 가나자와 미술관이 대표적이다.

21세기는 다양한 생각이 만나고 결합하는 시대다. 그리스시대 다양한 의견을 나누던 아고라와 원형극장에 깃든 창의적인 시각을 생각해야 할 때다. 저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건축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출발'이라고 강조한다.

<출문회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죽을 때까지 책 읽기=책 읽기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매사를 생각하는 태도를 길러주며, 나아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또한 아날로그적인 존재가 인식되는 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선입견을 바로잡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 그 가치와 효용을 직접 실감할 수 있는지, 직장인들에게 효과적인 독서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조망한다.



<소소의책·1만3800원>
▲위험한 민주주의="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지는 일, 그것이 다가오는 위기의 실체다!" 저자는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뜻'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뤘던 호황기는 끝났다고 진단하며 맞춤 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늘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필요조건임을 역설한다.



<와이즈베리·1만6000원>
▲신노예=4차 산업혁명 시대, 잉여인간의 살길을 모색하는 책이다. AI가 발달하고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면서 우리 삶에 한결 편해졌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에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신노예' 계층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 앞의 월든=이 책은 실제로 현업을 정리하고 자연으로 들어가 1년의 안식년을 감행한 저자들이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었으나 활용하지 않았던 힘을 '녹색 회복탄력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망했다. 스트레스가 무한 반복되는 삶의 궤도를 변화시키고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법, 행복해지는 지름길은 지금 당장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된다. <울리시스·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속도와 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이 책은 여행 그림책이다. 어떤 페이지를 넘겨도 자동차는 왼쪽 그림 같은 자리에 있고, 초원·도시·강·해변으로 배경이 바뀌어도 오른쪽에 있는 길은 항상 이어진다. 이 책은 위아래 책장을 같이 넘기면 따로 넘기듯 완벽한 여행이 된다. 어떤 순서로 책장을 넘기느냐에 따라 여행이 달라지는 그림책, 마치 우리 인생 같은 그림책이다.



<그림책공작소·1만3000원>
▲생쥐 없다!=코끼리는 생쥐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생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여우와 기린도 생쥐를 찾지 못했다. 생쥐는 대체 어디에 숨은걸까? 이 책은 간단한 반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 동물들의 꼬리나 다리 등 몸의 일부만 살짝 보여주면서 뒷장에 어떤 동물이 나올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청어람미디어·1만2000원>
▲점동아, 어디 가니?=한국의 첫 여의사인 김점동의 생애를 쓰고 그려 냈다. 당나귀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의 여성 한자를 돌보다 서른넷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진정한 예인의 의사 김점동을 만난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어 의술을 펼치기까지의 곡절 많은 점동이의 생애를 엮었다.



<씨드북·1만3000원>

로맹 가리·톨킨...위대한 작가들의 조력자

작가를 짓다

최동민 지음



1980년 파리에서 관총자살로 생을 마감한 로맹 가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공쿠르상을 두번 수상했다. 1956년 '하늘의 뿌리'로 공쿠르상을 수상한 그는 1975년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자기 앞의 생'으로 또 한번 공쿠르상을 받는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는 2차 대전에 참전해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으며, 프랑스 외교관으로 미국 등에서 근무했다.

그의 곁에는 '로맹에겐 부족함이 없어 야한다'며 그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어머니 니나 카체프가 있었다. "나는 빅토르 위고

'이동진의 빨간 책방',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 '책 읽는 라디오', '독자적인 책수다' 등 책과 관련 팟캐스트를 제작·기획해온 최동민이 펴낸 '작가를 짓다'는 작가라는 존재를 만들어준 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작가와 조력자의 관계를 링 위의 선 이들과 링 밖에 선 이들이라 말한다. "작가의 대단하지 않은 시작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언제까지도 링 위에 머물 수 있도록 소리쳐주었던 사람들"이라는 설명이다.

J.R.R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집필하며 슬한 좌절에 빠진다.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정신과 창조 모든 것이 소진돼 버린' 상황까지 이르고 글을 써내려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가 1949년, 소

설의 마지막 장을 쓸 수 있었던 건 동료이자 친구의 격려 덕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반지의 제왕을 끝까지 써내려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힌 대상, 바로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 S 루이스다.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출판이 금지된 '울리시스' 원고를 안고 전전긍긍하던 제임스 조이스에게 손을 내민 이는 파리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 운영자 실비아 비치였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화제를 모았고 서점의 단골이었던 헤밍웨이의 도움으로 미국에서도 독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책은 그밖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와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 히카리, '캐리'의 스티븐 킹과 아내 테비사를 비롯해 헤르만 헤세, 줄리언 반즈, 레이먼드 카버, 조지 오웰의 조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민음사·1만5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 현경면 양하리 대지 1052㎡ 전원생활적합 4500만원
- 신안군 일해도 북룡리 1810㎡ 저수지용 조용한생활 적합 4300만원
- 곡성 삼기면 대지등 681㎡ 광주서 30분내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제일아파트 89㎡ 9층 남향 전망좋은 1억
- 화순 동면 전원주택 땅 706㎡ 2층전원주택 상가주택교화원 2억6천

투자·매도·교환

- 남평읍 남평리 땅 1118㎡ 주택 99㎡ 교환가능 6억7천
- 서구 마북동 땅 3002㎡ 투자에적합 공사기 7억3천 매도 15억
- 신안군 암태면 독립섬 104132㎡ 추포도부근 5억
- 무인섬부지 화순 도곡면 2008㎡ 위치좋은 6억천
- 수목정(장래)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좋은 2억
- 수목정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신안동 전대정문쪽 토지 160㎡ 주택 70㎡ 찻집등적합 1억7300
- 고흥 나로도부근 팬션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충장로5가 도로보정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월산동 양면 소방도점 2층 주거지 873㎡ 12억7천
- 충장로5가 오지 대지 261㎡ 5층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 양동 모델·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좋은 11억

상가건물

- 카센타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층건물 297㎡ 현재운영중임 4억
- 농성역 부근 대지 973㎡ 4층건물있음 주차장 607㎡ 45억
- 유동 모델 대지 127 건평 297 객실 28 감정 11억6천. 7억6천
- 수기동 사거리 대지 152㎡ 3층 상가주택 292㎡ 4억2천
- 남구 서동 3층 상가주택 대지 156㎡ 건평 233㎡ 2억3천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9억
- 북동 5층건물 대지 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충장로5가 오지 대지 261㎡ 5층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 양동 모델·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좋은 11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목포시 공고 제2018-815호

목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목포 도시관리계획(하당지구, 신항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8.

목 포 시 장

1. 주요내용(하당지구)
가. 건명: 목포 도시관리계획(하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위치 및 면적
□ 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육양동 1023-1번지
□ 면적: 354.1㎡
다. 변경 범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공공공지(1) 신설: 70.8㎡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공동주택용지(C18) 가구면적 변경: 18,873.2㎡ → 18,519.1㎡(감 354.1㎡)
□ 근린생활시설용지(N1) 신설: 283.3㎡
3)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구분	대상(공동주택용지)	변경(근린생활시설용지)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용지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8호 별리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기타 별리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기타 별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공공도서관)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 집회장, 독서실)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제6조)상 학교환경위위정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구역 내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대지면적 차	• 대상지 북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차랑출입 허용구간 7m 지정	
건폐율/용적률/층수	30%이하 250%이하 15층 이하	60%이하 180%이하 3층 이하

* 단,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갈 경우, 연면적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2. 주요내용(신항만지구)
가. 건명: 목포 도시관리계획(신항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다.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구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시용 형태	주요 경과지
신설	중로 2	A	15	국지도로	230	중로1-47	중로2-8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A	도로신설 = L=230, B=15, A=3,512	C2블록내 장애요소를 위한 도시계획도상 신설

-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 도면번호 | 공원명 | 시설의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 1 | 공원 | 어린이공원 | - | 기점 3,073
변경 207
변경후 2,866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어린이공원	면적감소 - 207㎡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어린이공원 면적 일부 감소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유통·물류/창고/공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기점	변경	기점	변경	기점	변경			
-	C2	C2	34,920	31,615	-	1	1,786	2,135	1,651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2	1,851	2,135	1,716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3-1			1,733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3-2			1,733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4-1			1,733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4-2			1,733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5-1			1,733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5-2			1,734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기점	변경	기점	변경	기점	변경			
-	C2	C2	34,920	31,615	-	6	1,949	2,139	1,810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7	1,904	2,139	1,765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8	1,851	2,143	1,708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9	2,030	2,140	1,890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10	3,779	2,267	3,512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11	1,900	2,130	1,770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12	1,904	2,147	1,757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13	3,899	2,262	3,637	대지분할가능 신계획
						14	919	2,919	-	공공보행로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건축물 용도계획의 생략(공람장소 구비)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계획: 유통·물류/창고/공장용지

■ 기점

권장용도	지정용도(1)	불허용도(2)	비고
유통·물류/창고/공장용지(용도 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숙박시설·공공주택 □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 □ 위생물처리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제외)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공공시설 중 박물관 □ 동물원 및 식물원·유원지 □ 판매 및 영업시설(단, 산업전시장 및 박물관 등에서 설치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제외) □ 운동 및 집회시설(단, 산업전시장 및 박물관은 제외) 	

■ 변경

권장용도	지정용도(1)	불허용도(2)	비고
유통·물류/창고/공장용지(용도 C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공공주택·숙박시설(단 생활숙박 및 관광숙박시설은 제외) □ 위생물처리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제외)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공공시설 중 박물관 □ 동물원 및 식물원·유원지 □ 운동 및 집회시설(단, 산업전시장 및 박물관은 제외) 	

3. 관계도서: 관계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2018. 6. 8. ~ 2018. 6. 22. (14일간)
5. 열람장소: 목포시 도시계획과
6.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나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내 비워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 도시계획과(061-270-3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